

'여행체험 1번지 전북' 매력 알린다

도, 투어 매니저 발대식 개최... 관광 프로그램 설계 · 관광자원 · 여행 코스 등 안내

전북도가 도내 구석구석 매력있는 관광지를 찾아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투어 매니저'를 선발해 운영한다.

도는 전북 관광의 최일선에서 활약할 '전라북도 투어 매니저 발대식'을 2일 전북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

도 투어 매니저는 관광 프로그램 설계 및 관광자원 안내 등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이다.

이들은 도내를 방문하는 단체여행단 체류 일정 관리와 주요 방문지 설명, 도 및 유관기관 행사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한다.

도는 지난 2월 도내에 거주하는 국내외 여행인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1인 미디어 및 SNS 홍보활동 능자 등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후 시·군별 관광자원 현장교육과 스피치 교육 등을 통해 최종 17명을 선발했다.

도는 이번에 선발된 투어 매니저를 외래 방문자 및 방문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 '여행체험 1번지 전라북도'의 매력을 알리는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투어 매니저는 도내 전역을 관광하면서 여행객의 성향에 맞는 여행 코스를 안내한다.

특히,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특색있는 정보를 제공해 여행객에게 전북의 숨



전북도는 전북 관광의 최일선에서 활약할 '전라북도 투어 매니저 발대식'을 2일 전북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

은 매력을 제대로 맛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동목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는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려 있던 국민의 여행 욕구가 본격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

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도내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전북의 숨은 매력을 경험하고, 다시 찾도록 맞춤형 투어 매니저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외교부와 태권도 홍보 나서

공공외교 'One Step Closer to Korea' 제작 · 홍보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외교부와 함께 국기 태권도 활성화 및 보급을 위해 비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태권도'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영상은 한글, K-뷰티, 한국의 경제 등 9가지 테마로 제작하는 'One Step Closer to Korea' (한국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중 첫 편으로, 한국의 국기 태권도를 주제로 제작되어 외교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전 세계에 K-Culture가 유행인 가운데 태권도가 우리 문화 세계화의 원류임을 강조하고 한국을 알리는 공공외교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오응환 이사장이 영상 제작과 홍보를 직접 제안했다.

영상은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을 무대로 요르단과 이집트 여성이 태권도 수련을 하는 모습을 비롯하여 AR·VR을 통해 태권도를 즐기는 모습, 전통무예수련장에서 태권도 명상 등을 하는 모습으로 태권도를 소개하고 있다.

영상에 출연한 국가대표 출신 이대훈 선수는 예의와 배려 등 타인을 존중하는 태권도 정신을 통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음"을 말했다고



'One Step Closer to Korea' 중 태권도 편 캡처 사진.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인터뷰)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평등과 다양성 등 '페어플레이 정신'이 바탕이 된 태권도는 인종, 국가, 인프라 수준에 구애받지 않고 순수한 자신의 '노력에 의해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종목임을 강조했다.

한편, 육체와 정신 단련 등 태권도에 대해 소개하는 6분 분량의 영상은 현재 아랍어 버전이 외교부 및 해외 공관 유튜브에 업로드되었고 영어 버전도 곧 업로드되어 전 세계에 홍보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시립예술단, 독립운동가 정신 · 역사 자취 담은 창작칸타타 '항쟁' 합동연주회

군산시립예술단은 3.5 만세운동의 의미를 계승시키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오는 5일 오후 5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창작칸타타 '항쟁'을 무대에 올린다.

103년 전 서울 인사동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들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삼창을 도화선으로 독립만세의 열기는 들끓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3.1운동이 일어난 나흘 후, 한강 이남지역 중 최초의 자주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담은 군산 3.5 만세(1919년 3월 5일)운동이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백정현 상임지휘자의 지휘, 극본과 작곡에 오병희, 각색과 연출은 안지선이 각각 맡아, 목숨을 걸고 항거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역사의 자취를 담은 창작곡들로 음악회를 꾸밀 예정이다.

1부에는 새야새야 파랑새야, 통곡, 수탈, 항쟁, 함성이, 2부는 달, 사의찬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눈물젖은 두만강, 희망가가 이어진다. 마지막 3부에는 그 날이 오면 군산시립예술단과 다수의 솔리스트가 함께 합동연주인 칸타타의 진수를 보인다. 특히 소리꾼 고영열이 함께해 연주의 감동과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군산=남현용 기자

"무주 자긍심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

맹갑상 무주문화원장, 제9대 원장 연임

맹갑상 무주문화원장(74)이 제9대 원장으로 연임돼 앞으로 4년 동안(22.4.1~26.3.31) 무주문화원을 이끌게 됐다. 무주문화원은 지난달 28일 문화원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갖고 맹갑상 현 무주문화원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중심으로 조선왕조실록 이안 재현사업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무주만의 색깔을 만드는 한편 문화재 활용 사업 확대를 통한 무주만의 문화관광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만의 독특한 역사적 가치를 창조하는데 무주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이 참으로 지대하다"며 "무주군민들과 함께 무주발전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무주다운 공간으로 더욱 성장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문화원 8대 원장을 역임한 맹 원장은 조선왕조실록 이안 재현행사와 학술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역사고찰 및 무주의 자긍심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과장, 기획실장 등을 역임하고 정년퇴임했으며, 퇴임 후에는 무주사진가협회장, 무주관광협회의장, 무주군지 편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적상산은

/무주=전문선 기자



부안군 군립농악단 4기 단원 위촉

부안군은 2일 '부안문화의전당'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부안군립농악단 단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단원은 26명(부단장 1명, 사무장 1명, 일반단원 24명)으로 위촉기간은 2년이다.

'부안군립농악단' 명성에 걸맞은 실력 있는 부단장 및 사무장, 단원들을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 2월 모집공고를 통해 홍보를 하였고, 32명(부단장 1, 사무장 1, 단원 30) 모집계획에 44명(부단장 2, 사무장 2, 단원 40)이 접수되었으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엄격한 면접전형과 실기전형 심사를 통해 최종 26명이 선발되었다.

부안군 군립농악단은 2016년 창단 이후, 모든 단원이 다시 입단 관문을 거쳐 위촉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부안의 우수한 전통예술인 부안농악의 계승과 발전과 깊이 있는 예술성, 수준 높은 공연 문화를 선보이기 위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및 군립농악단 부단장의 부재로 활동이 저조했으나 개인역량이 뛰어난 단원들로 재구성된 만큼 정기연습 및 교육, 수시공연, 대외참가 등을 통해 부안농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의 대표 문화공연 단체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농악의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